の解

議 會

七日

0

批ot階級衡工

廿

經

는

大口四斗(大口四斗)、大口四斗(大口四斗)、神天政で輸が作り、神天政で輸が件)、神天政で輸が件)、神天政で輸が件)、神子政の同時が件(表域)

本典長氏(全国) (城津郡鶴城面錦川河の分と有志 田鉄率 姚永國外路氏의 現起豆二十四日の 展民會養組織が今長 音及当主要制領으로外之役新明 無誌等為防電하기로決定하五天 注文하び다더라(城津)

北道

評

議會

日

泰票

则叫의分第三部

十大台午 東南文川 東南文川 東

不時の第十三国皇親子司管年舎のメモ去

**急利の計活不災** ツュメタ路意介 

上水町

過收經星の絹のコ 7中の司中 日本の日野漫画前経 **라約國** 

成南「瓦製造計、元成南의昨年中瓦製造製ご製造業の南의昨年中瓦製造製ご製造製工百二十一萬七十張、價格十二萬一千圓到出二中日本瓦製造者七名製造製三十萬四千形、價格六萬餘圓5円共外二全部朝鮮瓦乙可製造場所是本道各地の円特的日本瓦列製計中日本直路地の円時の日本

大、元・中 (本版) 方 一 (本版) 方 (本版) 方 (本版) 一 (本版 

一一二四三一二一二山 九一〇九二一二二〇一七 高下高高ヶ高)面、高高

▲李忠模氏 労働無幹部) 去二十二日親渡鼻笛計呼咸南洪原 中二日親渡鼻笛計呼咸南洪原

江華普校學藝會

南地

一大年制別成會量和版明的中華 在中の中に対して、本語のでは、本語ので

에

五十六

がいます。 のでは、必要の應うでは、必要の應うでは、必要の應うでは、 のでは、必要の應うでは、 のでは、必要の應うでは、 のでは、必要の應うでは、 のでは、のでは、 のでは、のでは、 のでは、のでは、 のでは、のでは、 のでは、のでは、 のでは、 の

0.

宣門

黎 豐加

**敬天(汗浦)** 東金麗維金洪健 許 城理事情報 尹成辰 大孫敬根 間會長許豫

許金安

市調査

七

今年中の實行等府の分に大都市計劃方針の督府の分に大都市計劃を行き事可可のの民今年中の技師を手可可のの民今年中の技師を通かの實地調査がむけられて、

盟

努計 引 カ ・ ス の が ス ス放 

評

議

會

\_

B

十時中日同校園の日野をから 

宋特派 (1) 本時 (1) 本時 (1) 本時 (1) 本時 (1) 本時 (1) 本時 (1) 本 (1) 本

의肖常去漆 琴峰內二谷

学働夜學開始 一次式의前聯會等도叉스리 中国 明白司(城津)

에서 咗

敞

行 川 期 米 升二 四 日月 米。

変形の

高四三一、

四七三四

(第高 五五六、八八五國 (第高 六一九、一五二國 (春川)

倒圖

名 住 以 五 十 四 内 内 内 内 子 字 

本語 ( ) 本語 ( )

**銭** 八島富

地方巡廻

변경찰관수재소에 박성녀 를 데고소를제긔한것이라더라 (청주)

粗租全部를

난호어주고

**谷地巡演** 

ではいいい

百餘名女工

동한치위로 경북왜관 대한지가 누어있게 대한지가 누어있게

用か

비사이십이일새벽에부산(秋安) 학내리래옥(李潔玉)의다리자 혼꾸에 불이나서 삼십억석의나 혼꾸에 불이나서 삼십억석의나 일반하면 하마르면그근방이 진부 발반하면스나 다행이 진화되었 는데 원기인아주미상하나 방화 무대 원기인아주미상하나 방화 무대 원기인아주미상하나 방화

**德川農場舍音** 

総包内)에는 약일주일진부러류 ・ 학교주일진부러류 ・ 학교주일전부러류

醴泉에上毒感

世界等可开學的學 明中

求禮에서도

제 대이 한글등산교인수면수상의 〈典山한글등산교인수면수상의 〈典山한글등산교인수면수상의 〈典山이 등교통상면 달 이 아리(同都東上面淸阿里)리 당하 나십시일

경남진양정남진양(彦陽, 디밖에 쉬는요사이감모(惠月)가 말이가 문행하여날마다 환자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そなでから日の

· 김해한매질로 알학수업다고

부산다나이십일일에 전원일일기가조치 무단이십일일에 전원일일기가조치 무단이불어일기가조되기가조치 되면스며 이러한 현후관계등기 되면스며 이러한 현후관계등기 기구행하는모양이라더라 자가매일증가하는모양이라더라 다한

지수 [를 라이스 그탈의 조와하는 경우 무엇이던지 제막대로사기 자기는 상인에게속지만사기 무집과 시계만살펴보다 모친과 말리 보기를 보기 보기 되었다.

正沿の円

李春望氏出獄 합남당 (定平郡) 리춘명(李春堂) 시 중단원이 중단신진를 이 대포되어 (大田) 정단신고를 맛고 이래대 (大田) 정무소에서 복연증이라 십칠일에 만기기되야줄으나 십칠일에 만기기되야줄으

(流行性感氣)가 만역되야 집집이 가 한 그러 첫스며 그중에 사람이 의 집집이 가 만역되야 집집이 그중에 사람이 한 집집이 사람이 한 리고 하는데 그중에 사람이 되지 아이들들이 만 리시아이는 질성자가 현기 가 한 기 하였다

扶安의火災

건으로만 골나잡었다.이것으만 전에 이 주었으면 조켓다. 집안성구등의 전에 에드로이 다입시키도등의 전에 이 다입시키도등의 자기에 기밀요한 물건의 사기업 사람들은 어디가인 되었다. 그래서 등 보다 맛질 하다 말로 나는 어주는 원건 등 이 안에 주었으면 보다 맛질 하다는 보다 이 주의 사기 등 사기 등 보다 맛질 수 이 안에 건된 사기 의 사기 등 보다 맛질 수 이 안에 건된 사기의 사기의 생각 맛있다.

彦陽一言为

面長横暴呈

勞農會憤慨 소작권박탈을 다하다 기주의를 하지못한 관계라 다다 가주의를 하지못한 관계라 오원가량이나 된

사일으후 두시종에 주소청명을 자아이한당은 시내재동 (豫洞) 이라는데 그아이는의 된 그렇지 바라보이 되고 집장두부택이에 불고 『고부 신을 신었다더라 七八歲失家女兒 이십

兩違反犯可激增到 일반인민의주의할사항

言爭

立

引 毆打殺·

요산인

其外五十名은 

秋海劇收入 では足利で(成南文川郡)? でで和公りでき きめかけ でで和公りでき きめかけ

朝鮮人校長을 公普校可採

同盟。

인이상은금지 선전지는압수 금도 금지를식형다는대 이에 라야 일반의정찰관의 물상식

아하면 일본말을 두기다.

폴네이 하도면보는 알았지 또 소용이업슬즐을 알았지

r=3

「郡守」詐欺又 詐欺又

正个人的无叶正之时代两种

女學生會詰亂

怨恨

リー

薬債

구제한다면라(부안)
일본의 구에 보이는 작업 및 무성의 발해도 보이는 그림자 조차 아 대로 무성의 발해도 의 이 교육 보이는 그림자 조차 아 등작을이 보다 다니며 발 무선이는 그림자 조차 아 등작을이 이 교육 보이는 모양이며 소위 당하여 보다 나며 발 수 남의구제사업은 언제나 확수 남의 유명가 하는 목생각이 되는 모양이다면 소위 당하여 보이는 무성의 구제사업은 언제나 확수 남의 유명가 하는 목명 및 무섭이는 무성의 함께 나는 무성의 가는 무성의 함께 나는 무성의 함께 나 생도가잇다던라(구례) 扶安地方에 乞人激增

이십시아일 오건 다시에 오(옷)해 의 의편에 해군 의한 의 의편에 해군 의한 교(海軍)의 기명(內數)를 받기가든 이러하는데 군당인 발생기다대 군당인 개속명(內數)를 가다대 군당이 기두가 된 역은비다속에 떠뜨긴것을 꾸구가 되어 의원인은 조사중이라 되다 快速艇沈没

보스레운질과를 보시겠지요 자근아 있 떠나실생각이었다. 지 등 보시겠지요 자근아 있 떠나실생각이었으면 지 등 수이로 물이가 르번 실라고함집이 있지요 가 하누님 막다고함집이 있지요!!하다님 당하고 눈물쇠거대답을